

지역 매아리



정읍구절초향토사업단 구절초 관련 상품 홍보 활동 펼쳐

정읍구절초향토사업단은 지난 정읍구절초 축제 기간(10.1.~10.15.) 축제 현장에서 구절초 관련 상품 홍보 활동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호응을 얻었다.

사업단 소속 가공업체들은 구절초 강정과 구절초 향수, 구절초 막걸리 등 구절초 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판매했다. 또 구절초 차 시음과 구절초 컵 만들기, 구절초 족욕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특히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읍구절초의 특징 등을 설명하고 구절초 가공상품 개발을 위한 설문 조사도 실시했다.

사업단은 "전국 최고의 구절초축제 현장에서 홍보 활동을 통해 정읍구절초 특성과 관련 상품에 대한 인지도도를 높였고 실질적인 구매를 유도 높은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오는 11월에는 부산 BEXCO 국제 식품박람회에 참가, 다양한 정읍구절초 상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농촌 빈 집 정비사업 추진

고창군이 농촌 주거환경을 제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과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농어촌 빈 집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촌에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이 정비대상이며, 군은 규모 2억4500만원 이하 총 사업비 3억5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대 당 100만원~250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 약 140동의 빈 집 정비를 추진해 현재 9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우정 군수는 "농어촌에 오랜 시간 방치되어 폐허가 된 빈집들이 많으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농어촌 경관을 개선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유해환경을 없애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 민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문화·체육공간으로 탈바꿈

정읍시, 7억9000만원 투입 정읍실내체육관 보수·보강 마쳐

정읍실내체육관이 쾌적하고 편리한 문화·체육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시는 최근 지난 6월부터 추진해온 보수·보강 사업을 20일 마무리하고, 내달 1일 본격 개방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확보한 국민체육진흥기금 2억3700만원에 시비 5억5300만원을 더한 총 7억9000만원을 들여 지난 6월부터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위장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음향시설을 재정비하고, 체육관 바닥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각종 행사 개최나 문화공연 시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배드민턴과 농구, 배구 등의 체육활동도 보다 편리하고 원활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그간 다소 비좁았던 로비(lobby)를 확장 휴게실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 외부 정



정읍실내체육관이 지난 6월부터 추진해온 보수·보강 사업을 20일 마무리하고, 내달 1일 본격 개방할 예정이다.

비는 2018년 확보한 국비와 도비 1억5000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체육관 주변 배수로 정비와 함께 주차장 재포장 체육관 외부 도색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보수·보강을 통해 정읍실내체육관이 쾌적한 복합 스포츠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며 "앞으로

도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지동에 위치한 실내체육관은 연면적 2518㎡의 지상 2층 건물이다. 1984년 준공 돼 33년이 지나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보수·보강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죽막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동아시아 최대 해양제사유적 인정받아

부안군(군수 김종규)은 19일 문화재청 고시 제2017-127호로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부안 죽막동 유적(扶安 竹幕洞 遺蹟)'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부안군 변산면 적벽강 해안절벽의 죽막동 유적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해상교류의 중요한 길목으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뱃길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해양제사가 행해져 오고 있다.

지난 1992년 발굴조사에서 백제, 가야, 통일신라부터 조선, 중국, 일본에

서 만들어진 3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의 다양한 유물(제사용 토기, 금속유물, 토제·석제 모제품, 중국 도자기 등)이 출토돼 동아시아 최대 해양제사유적으로 인정받았다.

현재에도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개양현과 그의 여덟 딸을 모신 수성당이 위치하고 있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양제사유적의 성격을 간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적 지정이 세계유산 등재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죽막동 유적 일대는 체서강·적벽강



일원(명승 제13호), 후바나무 군락지(천기 123호), 수성당(전북유형 58호) 등이 밀집한 우리나라 최대 문화재 밀집지역으로 체계적인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이옥수기자

고창특화농공단지 입지후보지 분석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고창군이 국가적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혁신 20에 발맞춰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개념의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한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은 오랜 시간 지켜온 자연생태환경과 농어업, 역사, 문화의 융·복합화를 지향하며, 이에 걸맞은 산업공간을 마련

하기 위해 19일 '고창특화농공단지 입지후보지 분석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박우정 군수와 간부공무원, 용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균형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보고회에서는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오는 11

월말까지 최종 결과물을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복합용지를 도입해 농업과 문화 산업이 어우러지는 체계적인 개념을 구축하고 보다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내달 17·18일 '전국 브랜드지식농업 페스티벌' 개최

전국 브랜드 지식농업 경진대회 25일까지 참가 접수

고창군이 오는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일간 전국 지식농업인 발굴을 위한 '2017 전국 브랜드 지식농업 페스티벌'을 동리극악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브랜드 지식농업 경진대회, 농수산품 브랜드 홍보관 운영, 전국의 지식농업인과 함께하는 축하콘서트, 고창 다섯거리 아카데미 종강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전국 브랜드 지식농업 경진대회'는 전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마케팅으로 농업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과 단체, 법인 등을 대상으로 'B.I 분야', '패키지 디자인 분야', '마케팅 아이디어 분야'로 나뉘어지며, 특별

상으로 '가습승승' 분야까지 4개 분야에 걸쳐 중복 참가 가능하다.

전국 브랜드 지식농업 경진대회의 서류접수는 오는 25일까지이며 1차 합격자 35팀을 선정하여 최종 11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입상자들은 오는 11월 18일 최종 발표를 하게 된다.

군은 전국 브랜드 지식농업 페스티벌 개최로 농업인의 지식역량 강화 및 브랜드 홍보의 기회를 마련 및 브랜드를 활용하여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농업혁신을 통해 고창군이 지식농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김형대 부안군의원, 전북지구 IC특우회장 당선



김형대 부안군의원이 2017년 전북지구 IC특우회 전북 우정의 날 행사 및 임시 총회에서 제34대 특우회장이 당선 돼 2018년 전북지구 IC특우회를 이끌게 됐다.

김형대 부안군의원은 2002년 남부안IC를 전역하고 남부안IC특우회 감사(2013~2014), 남부안IC특우회 회장(2015~2016), 전북지구 IC특우회 부회장(2016)을 역임했으며 IC 발전에 헌신적인 협조와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한국IC특우회 중앙회장 특별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형대 부안군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6년간의 IC 활동을 경험한바 원칙에 입각한 소신있는 IC특우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행정에 솔선수범하는 IC특우회의 든든한 회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 낮은 자세로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특우회 회원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형대 부안군의원은 단국대학교(학·석사)를 졸업하고 군산대학교 대학원 사법행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부회장을 맡아 활동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호응'

정읍시가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 명의 토지 소재지를 찾아줘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불의의 사고나 재산관리 소홀로 자손들이 알지 못하는 조상 명의 토지 소재지를 찾아주고 있는 것. 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민선 6기 주요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 확대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해 모두 1179명이 신청해서 466명(180만9800㎡)에게, 올해는 지난 달

30일 기준 980명의 신청자 중 401명(213만826㎡)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조상 땅의 본인 명의의 토지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신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사망지의 제적등본 등 재산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단, 본인 명의 토지 찾기는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만 있으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and gift sets, along with text describing the product and its benefits. The text includes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It also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